

## 「美 國防調達」 참여 강연회 개최



◀池萬元박사  
강연 모습

본회는 11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여의도) 중회의실에서 美 國防調達 참여와 관련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國防部 및 조달본부 등 관계기관 실무자와 35개 회원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池萬元박사(美 해군대학원 부교수)의 「美國 방위산업 現實과 韓國 방위산업의 發展方案」을 演題로 盛況리에 進行되었다.

우리의 防産現況과 문제점을 비롯하여 發展方向을 提示하고, 美 국방조달 참여에 關連한 이번 강연회에서 池박사는, 『美國市場의 참여에 있어 政府를 통한 努力에서 脫피하여 個別 업체 위주의 說得戰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部品輸入과 國內組立의 단계에서 부품생산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美國의 主契約業體인 大企業보다는 核心技術을 保有하고 있는 中小 下淸업체를 발굴하여, Off-Set에 핵심기술 移轉條項을 삽입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부품생산의 활로를 열어야 된다고 強調했다.

그 例로서 1977年 네덜란드와 General Dynamics 社간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네덜란드의 DAF 社가 G.D. 하청업체인 Menasco Texas 로부터 「렌딩기아」 기술도입을 한 것과 이탈리아

아와 Raytheon 간 Sparrow 미사일 판매에 있어, 기술이전을 받아 이탈리아型 Aspide 미사일을 개발하여 지금은 Sidewinder (Sparrow)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등 10여가지를 이야기했다.

한편 美國의 防産現實을 紹介하면서 美國은 자체의 技術과 生産능력만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없어 Foreign Dependency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고, 小物量 國內 경쟁치열로 因한 財政的 難關克服手段으로 해외기술 판매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利用하며, 판매에 弱點이 있는 大企業의 政策을 活用할것을 主張했다.

이와함께 情報蒐集의 重要性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 方法으로 外國用役業體를 통한 現地 정보 수집에 倍前의 노력이 要求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Off-Set에 대해 다시 強調하면서, Off-set 조건을 먼저 提示한 後에 受諾이 되면 主裝備을 購入하는 方法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順理 임을 主唱했다.

또한 美軍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의 일부 維持部品중 美國에서 生産중단된 部품을 우리 방 산업체가 生産하는 것이 美國 防産市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最善의 방안임을 強調하고, 그 와 같은 品目을 提示하였다.

## 연구개발 實務討議會 열려

'87연구개발 실무토의회가 11월 23일 全經聯會館 대회의실에서 본회 주최로 회원사 실무자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防産物資의 연구개발政策에 대한 理解를 증진 시키고, 研究開發의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한 이번 토의회에는 「地上武器體系의 발전방향」, 「防産物資의 연구개발 발전방향」, 「방산물자 시험평가」의 세가지 主題로 進行되었다.